

2019학년도 동계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벤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20. 01. 12. ~ 02. 02.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건물들이 깔끔하였고 특히 화장실이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처음에 건물 위치 찾는게 어려워서 헤맸는데 구글지도에 자세히 나와있고 건물 입구에 L,A,B 등으로 크게 적혀 있어 나름 잘 찾아다닐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프리한 분위기이고 눈치보지 않고 편하게 다닐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큰 파일로 된 자료로 수업하고 수업 중간중간에 프린트를 주시면 파일에 끼면 됩니다. 파일이 너무 커서 들고 다니는 게 불편해서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과제만 챙기고 파일은 놓고 다녔습니다. 과제는 10-20분 안에 끝낼 수 있고 저널 같은 경우는 쌤이 문장도 고쳐주십니다. 수업은 ENGLISH ONLY로 영어만 쓰는 방식으로 했는데 저희 학생들끼리 대화하다 보니 한국어를 안 쓸 수는 없더라구요. 영어를 쓴다고 해도 어떤 부분이 잘 못된 부분인지, 잘 한 부분인지 알 수가 없어서 영어실력을 향상시키는데 그다지 큰 도움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담임 쌤도 너무 좋으시고 담당 선생님들이 너무 친절하셔서 자신있게 말하거나 듣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필드트립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 (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 - 오후 activity에는 팀별이나 개인별로 한시간 반정도 활동을 하는데 구경하면서 하면 금방하고 핸드폰에 메모 한 후 집에 가서 작성하면 편합니다. 1.그랜빌 아일랜드 : 저희가 갔을 때는 비가 와서 밖에 구경을 제대로 못

	했는데 기념품 샅도 많고 바로 앞이 바다라 구경할 거리가 많았어요. 마켓 안에도 맛있는 것도 많이 팔고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어서 좋았어요. 2.컬링 : 편한 신발 신으시고 양말은 두개 신으시는 게 발이 안 시려워요. 장갑도 끼시면 훨씬 따뜻합니다! 두시간이 훌쩍 지나갈 만큼 재밌었고 또 해보고 싶었어요. 추가요금은 없습니다 3.벤쿠버 뮤지엄 : 박물관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나름 볼 게 있고 활동지 작성하면서 둘러보면 시간이 채워집니다. 추가요금은 없습니다. 4.벤쿠버 아쿠아리움 : 정말 기대했던 활동인데 우리나라 아쿠아리움처럼 시간별로 물개 먹이주기, 펭귄 나기 등이 나뉘어져 있어서 알차게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커요!! 시간 나고도 둘러 볼 수 있으니까 여유롭게 보시면 됩니다. 5.서스펜션 브릿지 : 비가 올 때가서 우비를 입고 구경했는데 되게 멋있고 좋았어요. 그래도 높은 곳이다 보니 살짝 쌀쌀한데 맛있는 곳이니까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념품샵은 너무 비싸니까 굳이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저희가 갔을 때 한 3일? 빼고는 계속 비가 와서 우울했어요. 이틀인가는 눈이 너무 많이와서 학교가 휴교를 했고 눈오는 날 집에 있기 아까와서 나갔다가 눈사람이 될 뻔 했습니다..! 그래도 비오는 날은 비오는 데로 운치있고 좋았어요. 우산은 꼭 챙기시고 따뜻한 신발은 필수입니다! 운동화 챙기시면 돼요~
안전	-여름이랑 달리 해가 5시면 저버려서 굉장히 어둡고 길도 변화가 아니면 가로등도 없어서 무섭습니다. 특히 다운타운이나 가스타운 쪽은 homeless 도 많고 약이나 술을 드신 분들이 많아서 조심하셔야 돼요. 스카이트레인이나 길에서 말 걸어도 눈 마주치지 말고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가게도 6시나 7시되면 문 닫는 곳이 많아서 생각보다 더 어두워요. 홈스테이 집이 다 달라서 집가는 것도 거의 다를텐데 너무 늦지 않게 집에 돌아가고 친구들끼리 연락 주고받으면서 가세요!
숙소	홈스테이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 -학생들마다 가게 되는 홈스테이가 다 다른데 제가 머물렀던 곳은 1층이 가족들이 사용했고 저와 다른 룸메가 downstairs를 사용했어요. 화장실을 룸메와 같이 사용했고 룸메들이 너무 더럽게 사용해서 홈스테이 맘께 얘기해서 당분간 1층을 사용했습니다. 아이가 둘이 있는 집이어서 애기들이랑 놀면서 지냈고 밥도 다양하게 해주시고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샤워시

	간은 정해진 건 없었고 너무 늦게만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빨래는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날 같이 했고 빨래는 홈맘이 도와주셨습니다. 거의 집집마다 건조기가 있더라구요! 아침은 시리얼이나 빵을 구워먹었고 점심은 저녁에 남은 밥이나 인스턴트를 싸주셨습니다. 저녁을 먹고 들어가는 날에는 홈맘에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첫날 방이 너무 추워서 다음날 추가로 이불을 더 부탁드렸습니다. 밑에 층은 생각보다 굉장히 추워요. 청소는 제 방은 제가 깔끔히 유지하려고 했고 쓰레기통은 일주일에 한번 씩 빨래돌리는 날 홈맘께 드렸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 외부식당 (o)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아침은 홈스테이에서 간단히 해결하였고 점심은 런치박스를 먹었어요. 저희 집은 밥을 싸주는 통이 유리라 너무 무거워서 가끔씩 점심으로 싸주시는 걸 아침에 먹고 컵라면을 싸가서 먹었어요. 일주일에 한 두 번은 라면을 먹은 것 같아요! 김치 가져가셔서 먹으면 좋아요. 저희 집은 밥을 다양하게 해주셔서 입맛에 안 맞거나 한 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녁은 거의 맨날 나가서 먹었고 주말에는 한끼는 홈스테이에서 먹으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챙겨간 거 같이 드시면 좋아하십니다.
교통	-교통은 버스와 스카이트레인을 제일 많이 이용하고 학교에서 카드를 주셔서 그걸로 다 이용하실 수 있어요. 버스는 zone이 나뉘어져 있지 않아서 모든 버스를 이용이 가능하지만 스카이트레인은 zone 1,2,3으로 나뉘져 있는데 1만 무료예요. 다운타운이나 가스타운은 zone1이여서 아무 때나 갈 수 있고 평일 6시30분이후랑 주말은 zone상관없이 이용가능하니까 많이 놀러다니시면 됩니다. 아쿠아버스는 저는 안타긴 했는데 1회 이용하는데 오천원이라고 합니다. 교통은 진짜 편리했어요!!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90만원	저희가 갈 때 항공료가 너무 비쌌어요
로밍	5만원	
밥, 간식값	약 40만원	저녁이랑 간식
쇼핑	약 90만원	기념품이랑 맥아더글렌 쇼핑, 런던드럭 포함
합계	거의 300만원정도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홈스테이 신청서를 작성할 때 좀더 세세한 부분을 쓰는게 좋아요. 추가사항? 그 부분에 저는 홈스테이가 집에서 가까웠으면 좋겠고, 애기와 강아지를 좋아한다고 썼는데 거의 반영을 해 주신거 같아요. 어느정도 운도 따랐겠지만 학교에서 거리도 10분이었고 애기가 2명 있어서 나름 만족하고 지냈습니다. 홈스테이가 배정되고 나면 홈맘 이메일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세요! 드라이기,수건,빨래,샤워시간 등 기본적인 규칙에 대해 물어봐서 알고가면 마음이 조금은 편하답니다. 저는 다 가져오라고해서 가져갔는데 다른 집은 다 제공을 해줬다고 하네요! 집집마다 규칙이 달라서 궁금한 점들을 모아서 여쭙보면 좋아요. 그리고 다른 룸메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저는 룸메들이랑 화장실을 같이 썼는데 너무 더럽게 써서 화장실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저에게는 불편했어요. 다른 룸메들과 같이 쓰는게 싫으시다면 추가사항에 쓰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홈스테이 하면서 불편한 점이나 궁금한 건 바로바로 물어보는게 좋고 밥도 입맛에 안 맞으면 말씀드리는게 좋아요! 아니면 3주동안 고생해요..홈스테이 들어갈 때 간단하게 선물같은거 사가면 좋아하세요! 저는 오설록 녹차세트랑 아이들 선물은 인형 두 개랑 칫솔 사다줬는데 좋아하셨습니다! 한국적인 과자나 컵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겨울이라서 겔옷이 캐리어를 다 차지해서 두개를 끌고 갔는데 올 때 쇼핑을 너무 많이 해서 짐 쌀 때 힘들었어요. 아울렛에서 싸게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많아서 갈 때 캐리어 하나는 거의 비워가는데 나중에 짐 쌀 때 편해요! 양말이나 속옷은 넉넉히 챙겨가시고 삼푸나 바디워시들은 쓰고 버릴 수 있게 소분해서 가져가면 좋아요.

계속 거기 음식만 먹다보면 라면이 너무 먹고싶을까봐 5개정도 가져갔는데 딱 좋았어요! 김치도 조그만거 하나 가져가서 런치박스에 담아가서 먹으면 좋아요! 나무젓가락도 꼭꼭 챙겨가세요! 거긴 없어요ㅠㅠ 거긴 수돗물을 먹어서 사먹는 물이 2500원....텀블러챙겨가면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저는 없어서 사먹었어요.

저희가 갔을 때는 비가 계속 와서 공원에 많이 못 간게 아쉬워요 특히 빅토리아! 하루밖에 못 가긴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아침일찍 나서서 가보시는 걸 추천해요 갔다 온 친구들이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구요! 공원만 가도 힐링되니까 학교 끝나고 공원이나 비치를 많이 다녀보세요! 선셋 볼 때 너무 좋았어요ㅈ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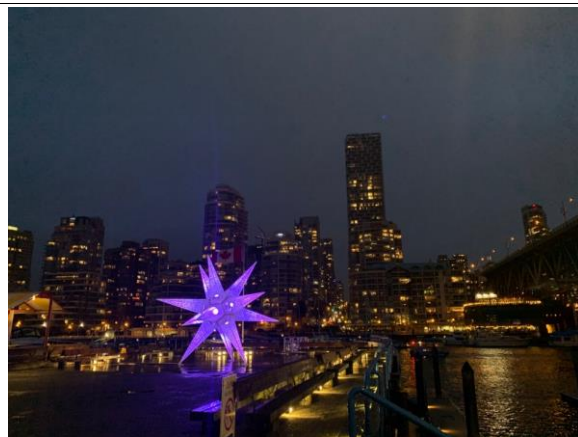
밤에는 생각보다 어둡고 무서워서 늦게까지는 못 다니겠더라구요. 집에 갈 때도 같이가는 친구들과 연락하면서 들어가고 너무 늦지않게 들어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3주 동안 타국에서 보내려니 언어는 물론이고 날씨, 사람들과 적응하기 바쁘고 정신없었는데 눈 뜨고 나니 3주가 지나있었어요. 그만큼 시간이 정말 너무 빨랐어요. 언어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른 곳에서 어떻게 지내지 하는 걱정이 앞섰었는데 막상 지내고 나니 너무 재밌고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시간 이었던 것 같아요. 3주로 영어실력이 향상될거라는 기대는 안 했지만 3주 내내 영어만 듣고 어느정도 말 하려고 하다보니까 귀가 조금은 트인 것 같고, 외국인에게 자신있게 말 걸 수 있을 정도는 된 것 같아서 조금은 뿌듯해요! 말을 하려는 의지가 있고 자신감만 있으면 두려워 할 건 없는 거 같아요. 머무는 동안 좋은 사람들과 좋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좋지만은 않아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밴쿠버를 즐길 수 있었던 거 같아요! 3주가 진짜 빨리 지나가니까 어느정도는 계획을 세우고 가시는 걸 추천해요! 똑 같은 상황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자신이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얻어가는 것도 많을 거예요!! 저는 이번 단기어학연수를 계기로 다른 나라 한 달 살기도 계획해보려고 해요! 저한테는 너무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 시간이었던 만큼 나중에 가게 될 다른 분들에게도 뜻 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요!!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필수)



그랜빌 아일랜드



키질라노 비치 앞 local 햄버거 집



밴쿠버 아쿠아리움



서스펜션 브릿지



선셋 비치



푸틴 poutine